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454-4863
jisoo.jeong@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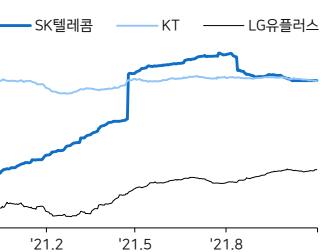
2021.11.22

1 주가 현황

	수익률(%)				PER(x)		PBR(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
	1W	1M	3M	6M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KOSPI	0.1	-1.2	-2.9	-5.9	10.7	10.7	1.2	1.2	1.7	1.7	
통신업종	-0.8	-2.1	4.5	-0.8	8.5	8.5	0.7	0.7	3.8	3.8	
SK텔레콤	0.0	3.9	8.8	0.0	8.9	7.9	0.9	0.8	3.3	3.5	
KT	-1.6	-2.8	-2.8	-0.2	7.9	7.5	0.5	0.5	5.3	5.8	
LG유플러스	-3.1	-7.4	1.5	-5.5	8.2	7.6	0.8	0.7	4.0	4.6	
AT&T	-3.2	-6.3	-12.5	-19.6	7.2	7.6	1.0	1.0	8.6	8.1	
Verizon	-2.8	-4.7	-8.4	-10.6	9.5	9.5	2.6	2.2	5.0	5.1	
T-Mobile	-2.2	-1.1	-18.5	-15.0	49.3	36.9	2.1	2.0	0.0	0.0	
NTT	-3.3	1.4	12.0	10.0	12.8	10.0	1.4	1.4	3.3	3.5	
KDDI	-0.9	-8.5	1.3	-8.0	12.0	11.5	1.7	1.5	3.5	3.7	
Softbank	0.1	4.3	11.4	-19.4	3.1	8.3	1.6	1.0	0.6	0.7	
China Mobile	-0.2	-3.4	-6.4	-5.0	6.9	6.6	0.7	0.6	7.6	8.2	
China Unicom	-0.5	-2.0	-9.7	-5.9	6.6	6.2	0.3	0.3	7.3	8.9	
China Telecom	-0.4	-6.8	-6.1	2.7	7.2	6.9	0.5	0.5	8.2	9.5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SKT 43.9% (Flat WoW, -0.2%p MoM)

KT 43.9% (-0.1%p WoW, -0.2%p MoM)

LGU+ 34.3% (+0.1%p WoW, Flat MoM)

LGU+ 외국인 지분율 상승 지속

2 업종 코멘트

통신 동향

11월 셋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0.9%p 수익률을 기록하며 Underperform
KT와 LG유플러스는 디즈니 플러스 국내 출시로 모바일 및 IPTV 프로모션 재개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망 이용대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내 기관은 KT, LGU+ 순매도. 외국인은 LGU+ 순매수, KT 순매도

금주 전망

금주는 특별한 이벤트가 부재
연말 배당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배당주인 통신주에 대한 관심 회복 전망
시장은 이달 29일 SK텔레콤과 SK스퀘어 재상장 및 적정 기업가치에 대해 높은 관심
5G 통신장비주는 실적 성장세 지속과 텐어리운드가 예상되는 서진시스템, 대한광통신 선호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4	15	16	17	18	19	20 더민주 김상희, 망 이용료 관련 개정안 발의
21	22	23	24	25	26	27

3 주간 뉴스

▶ 김상희 부의장, 구글·넷플릭스 망사용료 회피방지법 발의

(ZD Net Korea)

- 해외 콘텐츠사업자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
-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에서 다른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 체결이 가능
- 김영식 의원도 유사한 목적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개정안들이 병합심사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 국내 사업자들의 경우 연간 1천억원 이상의 망 사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 애플TV,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OTT의 국내 진출 시 국내 ISP의 망 사용대가 금액은 더 커질 전망

▶ 미국 항공업계, 중대역 5G 상용화 무기한 연기요청

(전자신문)

- 미국 항공산업, 3.7~4.2GHz 중대역(C-밴드) 5세대(5G) 이동통신을 무기한 연기해달라고 정부에 요청
- 항공기의 착륙전 고도에서 지상으로 전파 밸사 중 3.7~4.2GHz 대역 사용하는 5G 망과 간섭이 발생
- 백악관과 FCC, FAA가 제안을 수용할 경우 미국의 중대역 5G 상용화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될 전망
- ⇒ C-밴드를 이용해 5G 서비스 상용화를 준비하던 미국 버라이즌과 AT&T 계획에 차질이 생길 전망
- ⇒ C-밴드 5G 장비 공급 기대한 에릭슨, 노키아, 삼성전자 등 통신 장비 기업도 불확실성 가중될 전망

▶ 삼성전자, 호주 TPG텔레콤 '5G vRAN' 시험 완료... 망 구축 협력 확대

(전자신문)

- 삼성전자, 호주 이동통신사업자 TPG텔레콤과 mmWave 5G 이동통신 가상화 솔루션 시험 완료
- 호주에서 26GHz 주파수 대역 5G vRAN과 통합 밀리미터파 솔루션 테스트가 이뤄진 것은 처음
- 이번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26GHz와 28GHz 등 초고주파 대역 통신장비 수주에 속도를 낼 계획
- ⇒ 호주 5G 통신장비 시장은 에릭슨과 노키아가 텔스트라, 보다폰 등에 장비 공급하며 초기 시장 선점
- ⇒ 후발주자인 삼성전자는 올해 주파수 경매가 이뤄진 밀리미터파 대역을 공략, 장비 수주 기회 모색 중

▶ SKT, '차세대 5G 코어' 내년 상용화...트래픽 처리효율 50% ↑

(아이뉴스24)

- SKT, 2022년 1분기 상용화 목표로 클라우드-네이티브 기반 차세대 5G 코어 장비 구축 시작
- 클라우드-네이티브는 각종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제작을 클라우드 환경 기준으로 구축
- 하드웨어 장비와 비교해 빠른 업데이트를 통한 서비스 출시 시간 단축 및 안정성 확보 등이 장점
- ⇒ 클라우드-네이티브 기반 차세대 5G 코어가 개발을 마치고 구축 단계에 도달한 사례는 최초
- ⇒ SK텔레콤은 이를 계기로 에릭슨과 이 분야의 표준을 제시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

▶ 티맵, 위드코로나 이후 일간 이용자수 최대치 기록

(ZD Net Korea)

- 티맵모빌리티, 위드코로나 초기 이후 국민들 이동량이 크게 늘어나 일 활성 사용자수 최대치 기록
- 이번 DAU는 484만명으로, 2020년 최대치인 448만명 대비 8% 이상 늘어난 수준
- 이달 1일부터 14일 2주간 티맵의 전체 길 안내 건 수는 1억2천32만건(+9.95% YoY)으로 집계
- ⇒ 티맵모빌리티는 2025년까지 연매출 6천억원, 기업가치 4조5천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 설정
- ⇒ 현재 기업가치는 우버 투자 이후 1조4천억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2025년 전후 IPO 추진 전망

▶ 삼성전자, 갤럭시A 전 모델 5G 적용... 에코시스템 확대 가속

(전자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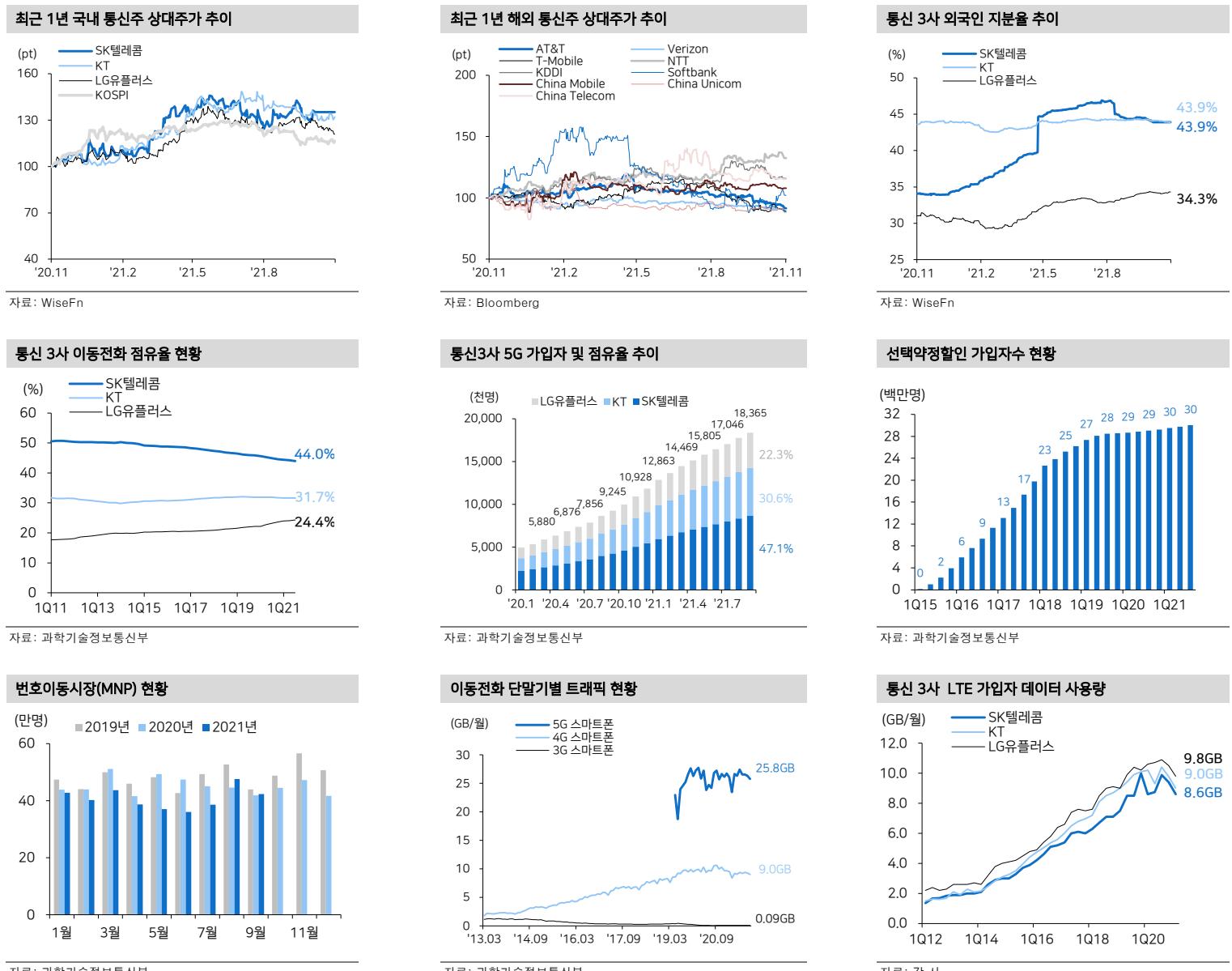
- 삼성전자, 2022년 출시를 준비 중인 갤럭시A시리즈 전체 모델로 5G를 확대 적용할 계획
- 유럽과 중남미, 인도, 동남아 등 5G 보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중저가 모델 경쟁력 강화
- 2022년 갤럭시A73 5G, A53 5G, A33 5G, A23 5G, A13 5G 등 6개 모델 출시 준비 중
- ⇒ 아이폰13 포함 5G 단말기의 계속된 출시로 국내 5G 가입자는 지속적인 우상향을 기록할 전망
- ⇒ 국내 5G 가입자의 지속적인 증가는 무선 ARPU 증가로 인해 통신 3사 실적에 긍정적

4 주요 지표

(집약달력)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한국	SK텔레콤	N/A	18.7	16.6	17.2	1.3	1.4	2.2	2.4	4.8	5.0	5.8	5.6	10.4	10.7
	KT	31,050	6.8	20.8	21.5	1.3	1.4	0.9	0.9	4.4	4.5	3.0	2.9	7.2	7.4
	LG유플러스	13,850	5.1	11.7	12.2	0.9	1.0	0.6	0.7	2.9	3.1	3.6	3.5	9.7	9.9
미국	AT&T	24.1	172.3	167.1	156.5	30.5	31.9	23.6	22.1	52.3	51.0	6.7	6.8	13.5	12.6
	Verizon	50.9	210.6	133.3	131.6	32.5	32.9	22.5	22.3	48.4	49.2	7.3	7.2	29.8	26.1
	T-Mobile	115.6	144.4	80.0	82.3	7.0	9.0	2.9	4.0	26.8	28.0	8.1	7.8	4.5	4.8
일본	NTT	3,184	101.2	108.2	106.1	15.1	15.3	8.4	9.8	29.0	28.6	6.2	5.9	10.8	14.7
	KDDI	3,410	68.9	48.5	47.5	9.6	9.3	6.0	5.9	16.3	15.8	5.2	5.1	14.5	13.8
	Softbank	6,856	103.6	50.9	53.3	49.9	5.6	37.1	12.8	50.0	N/A	5.4	N/A	39.3	15.1
중국	China Mobile	47.4	124.4	133.1	140.9	18.5	19.5	18.0	19.5	48.5	50.7	1.1	1.0	9.6	9.8
	China Unicom	4.0	15.7	50.8	53.4	1.9	2.1	2.4	2.6	15.1	15.6	0.8	0.8	4.5	5.0
	China Telecom	2.6	55.6	68.0	73.0	5.3	5.8	4.0	4.4	19.8	20.9	2.5	2.4	6.6	6.6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5 주요 차트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히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